

EYA NEWSLETTER

ENGLISH TITLES

FICTION

제목 : SOMETIMES I LIE
가제 : 난 가끔 거짓말을 해
저자 : Alice Feeney
출판사: Curtis Brown
발행일: 2017년 3월 23일
분량 : 384 페이지
장르 : 소설/스릴러



- * 정신만 깨어나 자기 몸에 갇혀버린 여자, 아직 끝나지 않은 위험 속에 짜맞춰 나가는 기억 퍼즐
- * 파버 아카데미(Faber Academy) 졸업, BBC 프로듀서 출신 신인작가의 데뷔작
- * 『Behind Closed Doors』, 『The Girl on the Train』, 『The Widow』를 잇는 심리스릴러

라디오 프로그램 <커피 모닝스> 진행자인 앰버 레이놀즈가 정신을 차린 곳은 병원 침대였다. 정신은 잠에서 깨듯 서서히 돌아왔지만, 몸은 전혀 움직일 수가 없었다. 낮선 목소리들이 이야기하는 의식불명이라는 단어를 앰버는 자신을 향한 말이라고 믿지 않았다. “나는 서른한 살 이야. 남편 이름은 폴.” 앰버는 분명한 사실만 의식적으로 되뇌며 온전한 정신을 잃지 않으려고 애를 썼다. 간호사 두 명이 들어와 대화를 나누는 것을 듣고, 앰버는 크리스마스 바로 다음 날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보통 때 같았으면 폴과 함께 친정 집에 가 있어야 할 날이었다. 그런데 가족은 커녕 왜 아는 사람이 한 사람도 보이지 않을까? 왜 혼자 병원에 누워있을까? 간호사도 그게 의아했는지 다른 간호사에게 왜 이 환자는 보호자가 없느냐고 묻자, 묘한 대답이 돌아왔다. 지난 밤 늦게 구급차에 실려온 환자인데 병원에서 남편에게 계속 전화했지만 한 번도 받지 않고 음성 사서함으로 바로 넘어갔다고. 앰버는 자신이 어디에 있고 어떤 상황인지는 인지할 수 있었지만 최근 기억들이 산산이 조각나버렸다. 뿐만 아니라 정신은 깨어났어도 몸은 굳어버린 것처럼 움직일 수가 없었다. 목이 말라도 물을 달라고 말을 할 수도 없었다. 이 지경이 된 이유가, 자기 몸 속에 갇혀버린 까닭이 도저히 생각나지 않았다. 그런데 잠시 후,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을 때 앰버는 직감했다. “여보, 정말 미안해. 나 이제야 왔어.” 폴의 음성을 듣는 순간, 수천 개의 손가락이 머리를 쿡쿡 찌르는 듯한 고통이 급격히 몰려왔다.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기억나지 않지만, 앰버는 남편이 이 일에 관련되어 있음을 확신할 수 있었다.

폴은 간절한 목소리로 제발 깨어나라고, 자기 목소리가 들리냐고 계속 이야기했다. 하지만 앰버의 마음은 그 음성과 함께 이유를 알 수 없는 고통을 느낀다. 더 이상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남편, 위태로운 비밀을 숨기고 있는 여동생, 자신을 놓아주려 하지 않는 과거의 남자친구, 혼란스럽고 희미하기만 한 일들이 의식 저편에서 떠오를 뿐이었다. 앰버는 바로 일주일 전 평소와 다를 게 없이 라디오 방송국으로 출근했던 날부터 깨진 기억의 퍼즐을 짜맞추기 시작한다. 공동 진행자인 매들린은 그 날도 대놓고 앰버에게 악의적인 감정을 드러냈고, 프로듀서이자 앰버와 절친한 조는 그 문제를 크게 염려했다. 그리고 몇 년 전, 폴이 첫 소설을 발표했을 때 만나 식사까지 했던 유명한 소설가가 초대 손님으로 출연한 날이기도 했다. 뿌연 안개처럼 잡힐 듯 드러나지 않는 기억의 실체를 찾아가는 동안, 앰버는 분명 누군가는 거짓말을 하고 있고,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는 이 끔찍한 상태가 끝이 아님을, 아직 더 큰 위험이 남아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더 늦기 전에, 어떻게든 깨어나야 한다.

무슨 비밀이 드러날지 모르는 긴장감이 팽팽하게 이어지는 가운데 반전과 강한 흡입력을 갖춘 흥미진진한 데뷔작으로, 현재 영국에서 판권 경매가 준비 중이며 독일 출판사의 판권 계약도 진행 중인 소설이다.

<저자 소개>

앨리스 피니(Alice Feeney)는 BBC 뉴스에서 5년간 일하면서 기자, 뉴스 에디터, 예술과 엔터테인먼트 프로듀서, ‘낮 한 시 뉴스’ 프로듀서로 일했다. 파버 아카데미의 소설가 양성 코스(Faber Academy Writing a Novel course)를 졸업했다.

제목 : THE HOUSE

가제 : 집

저자 : Simon Lelic

출판사: Penguin Random House UK

발행일: 2017년

분량 : -

장르 : 소설/스릴러



* 유럽, 브라질, 러시아 등 전 세계적으로 판매되며 각종 수상 후보에 올랐던 『Rupture』, 『The Facility』, 『The Child Who』의 작가가 5년 만에 완성한 기대작

* 가장 편안해야 할 집에서 느껴지는 낯선 이의 눈길, 죽은 채 발견된 남자, 그리고 위험한 게임,

4월의 어느 날, 잭과 시드니는 런던에서 그 집을 발견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인터넷에서 집을 찾아낸 건 시드니였고, 이미 반 이상 마음이 넘어간 상태로 잭에게 집이 공개되는 날 서둘러 가 보자고 졸랐다. 두 사람은 괜찮은 집을 구하려고 지난 2년 동안 허리를 졸라매고 돈을 모았다. 마침내 집을 보러 간 날, 시드니가 재촉하는 통에 40분이나 일찍 도착했지만 이미 예닐곱 명이 먼저 와서 문 앞에 줄을 서 있었다. 런던에서는 흔한 풍경이고, 집주인이 급매로 내놓은 집이라 가격 조건이 매력적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그럴만한 이유는 충분했다. 하지만 잭은 오싹할 정도로 낡고 허름한 건물의 외관이며 어수선하게 정리 안 된 작은 정원부터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 그리고 집 안에서 이상한 거부감까지 밀려왔다. 그로부터 5개월여가 지난 9월 중순, 잭은 그때의 첫 인상을 떠올리며 이 집을 계약하지 말았어야 한다고 부질없는 후회를 한다. 하지만 누가 예상했을까? 시드니가 훌쩍 반해버린 그 집에서, 잭 자신이 여기저기 꺼림직한 기분도 들고 썩 내키지 않았다고 해서 그토록 꿈쩍한 일이 벌어지리라곤 그 날 집을 보러 왔던 사람들 중 누구도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다. 심지어 위치가 좋고, 낡았지만 공간이 넉넉하다는 장점도 있었다. 그러나 젊은 커플이 마침내 입주한 이 집에서 위험천만한 게임이 시작된다. 보이지 않는 누군가가 집 안 어디선가 조용히 지켜보고 있다는 섬뜩한 확신, 설명할 수 없는 이상한 일들, 그리고 분명 두 사람을 해치려고 호시탐탐 노리는 눈길, 그 한가운데에 내몰린 두 사람에게 빠져나갈 구멍은 없었다.

부동산 중개업자는 집주인이 호주에 사는 여자와 사랑에 빠져 모든 걸 내던지고 떠나버렸다고 설명했다. 은퇴할 나이에 가까운 주인이 생활해온 흔적이 집 안 곳곳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잭이 보기에선 너저분하기 짝이 없었다. 오래된 가구며 책, 옷가지가 지저분하게 널려 있고 벽에는 빈 자리가 없을 정도로 사진과 그림이 빼곡하게 걸려 있었다. 널찍한 공간인데도 발 디딜 구석도 없을 정도로 물건이 가득한 것도 문제였지만 단연 눈길을 사로잡은 건 박제된 새들이었다. 독수리, 갈매기, 심지어 비둘기까지, 수십 마리의 새들이 굳어버린 눈길로 내려다보는데, 잭은 시

드니가 그런 흉측한 광경을 아랑곳하지 않는 것이 이상할 따름이었다. 집 안에 들어서기도 전에 시드니는 대만족이었고 책은 늘 그랬듯, 모든 결정에 두려리 역할을 해온 사람답게 마음에 든다고 말했다. 물론 ‘헝거게임’ 같다는 솔직한 인상을 시드니에게 이야기하긴 했지만, 시드는 함께 본 그 영화의 내용조차 떠올리지 못했다. 책에게도 다 털어놓지 않은 시드니의 험난했던 어린 시절과 너무 어릴 때부터 시작한 담배, 마약은 시드니에게 크나큰 영향력을 행사했다. 책은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지만 시드니의 결정을 거부할 수 없었고 시드니를 행복하게 해주고 싶었다.

대출을 받아도 그 집을 살 만한 형편이 안 되던 책과 시드니는 집주인이 남긴 물건을 하나도 버리지 않고 그대로 둔다는 조건으로 결국 계약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마침내 이사를 들어온 그 날부터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한다. 누군가가 시작한 헤어날 수 없는 게임에 어쩔 수 없이 말려든 두 사람은 얼마 후 현관문에서 시체를 발견하고 그가 가까운 곳에 사는 사람임을 알게 된다. 벗어나려면, 이 집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세상에 알려야 한다. 이야기는 책과 시드니의 시선에서 번갈아 가며 진행되며 긴장감을 높인다.

<저자 소개>

사이먼 렐릭(Simon Lelic)은 저널리스트로 일하면서 소설가로도 활동 중이다. 데뷔작 『Rupture』로 존 크리시 대거(John Creasy Debut Dagger) 상 결선에 오르고 베티 트라스크 상(Betty Trask Award)을 수상했다. 이어 『The Facility』로 CWA 존 크리시 뉴 블러드 대거(CWA John Creasey New Blood Dagger) 상 결선에 오르고 데스몬드 엘리엇 상(Desmond Elliot Prize)과 식스틴 올드 페쿨리어 범죄소설 상(Theakstons Old Peculier Crime Novel of the Year Award) 후보에 올랐다.

제목 : HOW TO WALK AWAY

가제 : 떠나는 법

저자 : Katherine Center

출판사: St. Martin's Press

발행일: 2018년 겨울

분량 : -

장르 : 소설/여성소설



- * “감동과 재미, 마음을 찡하게 하면서도 유쾌함이 가득한 좌충우돌 소란스러운 이야기는 너무나 인간적이다. 한 번 읽으면 놓을 수가 없으니 날 잡아서 읽어야 할 책”-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작가 제니 로슨(Jenny Lawson)
- * 시셀리아 어현의 『P.S. I Love You』, 니콜라스 스파크(Nicholas Sparks)의 운명적인 사랑 이야기, 매리언 키스(Marian Keyes)의 유머와 위트를 떠올리게 하는 소설
- * 담백하고 솔직한 글, 유머로 웃음을 주고 사랑, 꿈, 장밋빛 미래를 잃는 주인공을 통해 눈물 흘리게 하는 현실적인 이야기

MBA 학위과정을 막 마치고 엄청난 연봉을 약속한 직장엔 첫 출근할 날을 앞둔 마가릿의 인생은 누가 봐도 이제 탄탄대로에 오른 것 같았다. 똑같이 학위를 따고, 대기업 재무분석가로 입사한 남자친구도 있었다. 겁이 많은 마가릿과 달리 번지점프며 스카이다이빙 같은 스포츠를 즐기는 그는 심지어 잘생기고 성격까지 좋았다. 그런 남자가 마가릿에게 청혼까지 했다. 어릴 때부터 마가릿의 언니는 집에서 자신이 ‘두뇌’ 담당이고 마가릿은 ‘미모’ 담당이라고 선을 그었지만, 그 즈음 되자 두뇌와 미모, 두 가지가 마가릿에게 모두 쏠린 것만 같았다. 언니는 식구들과 떨어져 지내고 싶다며 홀연히 집을 나가 벌써 3년째, 이따금씩 살아있다는 정도만 알려줄 뿐이었다. 마가릿은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 열심히 길을 닦아왔고 이제 그 결실이 눈앞에 모두 펼쳐진 참이었다. 그러나 남자친구 침이 마가릿을 위해 준비한 깜짝 이벤트가, 바로 손 닿는 곳에 있던 꿈들을 모두 물거품으로 만들어버렸다. 파일럿 면허를 딴 침이 직접 모는 비행기에 몸을 싣고 파란 하늘을 날고, 로맨틱한 프러포즈가 이어졌을 때만해도 마가릿은 평생 무서워했던 비행이 잠깐 즐겁다고 생각될 만큼 벅찬 행복을 느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처음 비행기에 오를 때처럼 건강한 모습으로 땅에 돌아오지 못했다. 그리고 전혀 예상치 못한 새로운 삶이 시작됐다.

사실 마가릿은 하늘을 나는 일을 누구보다 두려워했다. 고등학교 다닐 때 부모님이 언니와 마가릿을 하와이로 보낸 적이 있었는데, 비행기가 바다에 추락할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며칠 동안 한시도 머릿속을 떠나지 않아 밤에 잠도 못 잘 정도였다. 물론 그런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고 그 후로도 여러 가지 이유로 비행기에 올라야 하는 일이 생겼지만 매번 무사했다. 그렇다고 해서 비행 공포증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3년째 사귀어 침이 어느 때처럼 저녁식사를 하러 가자고 했던

문제의 그 날, 마가릿은 처음부터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늘 그랬듯 그 예감이 통쾌하게 빗나가 쓸데없는 걱정으로 드러나길 바랐지만 나중에 되짚어보면 틀린 게 하나도 없었다. 침이 자신만만하게 조종석에 앉아 자신이 모는 비행기를 꼭 태워주고 싶다며 이야기할 때 마가릿은 비행기 날개가 부러지면 어쩌나, 하는 공포에 사로잡혔다. 항상 비행을 두려워해왔기에 그런 걱정도 새삼스러운 일은 아니었지만 웬지 그날따라 확신이 들었다면 착각일까. 출발은 순조로웠고, 침이 준비한 이벤트도 순탄하게 진행됐지만 착륙을 시도하면서부터 문제가 시작됐다. 활주로 가까이 하강한 비행기의 방향과 직각으로 세차게 불어대는 돌풍에 몸체와 날개가 요동치고, 몇 번의 재시도 끝에 가까스로 바퀴가 콘크리트 바닥과 만나려는 찰나, 획 몰아친 바람에 비행기는 옆으로 뒤집히고 말았다. 침은 얼른 조종석을 빠져 나왔지만 마가릿은 다리가 찢겨진 비행기 앞부분에 완전히 끼어버렸다. 침이 구조 요청을 하러 간 사이, 연료탱크 쪽에서 불길이 솟기 시작했다. 천 년 같던 몇 분의 시간이 흘러 반가운 사이렌 소리가 울려왔고, 마가릿은 목숨을 건진 건 정말 행운이라는 구조대원의 말에 정말 그렇다고 생각했다. 어디 아픈 곳도 없었다. 하지만 산소마스크를 쓴 채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갈 때 이미 마가릿의 미래는 방금 떠올랐던 하늘보다 더 먼 곳으로 떨어진 후였다.

이제 두 번 다시 예전의 생활로 돌아갈 수 없게 된 마가릿은 갑작스러운 낯선 삶을 받아들여야만 하는 상황에 놓인다. 불행은 한꺼번에 찾아온다는 말처럼, 전혀 몰랐던 가족의 비밀까지 마가릿을 덮쳐 몸과 마음이 모두 무너져 내린다. 평온한 삶은 더 이상 불가능하다는 좌절이 모든 희망을 앗아갔을 때, 마가릿은 뜻밖의 장소에서 어쩌면 다시 행복을 찾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발견한다. 웃음과 눈물을 모두 선사하는 마가릿의 현실적인 고투는 매일 삶과 싸우며 살아가는 우리들과 별반 다르지 않아 동질감과 진한 감동을 안겨준다.

<저자 소개>

캐서린 센터(Katherine Center)는 『Happiness for Beginners』, 『The Bright Side of Disaster』, 『Everyone Is Beautiful』, 『Get Lucky』, 『The Lost Husband』 등 총 다섯 권의 소설을 발표하고 특유의 유머 감각과 사람의 마음의 들여다보는 통찰력으로 찬사를 받았다. 특히 『Happiness for Beginners』는 「인스타일(In Style)」 매거진에서 북클럽 도서로 선정되며 베스트셀러에 올라 독일과 불가리아에서도 출간됐다. 그 외 책들도 브라질, 체코, 독일, 헝가리, 네덜란드, 러시아, 영국에 판매되며 인기를 얻었다.

제목 : THE BOOK OF THE UNNAMED MIDWIFE

가제 : 이름 없는 산파의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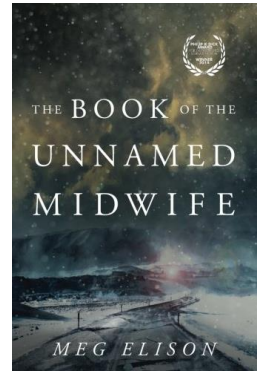
저자 : Meg Elison

출판사: 47North

발행일: 2016년 10월 11일(재인쇄)

분량 : 300 페이지

장르 : 소설/SF 스릴러



★ 2014년 필립 K. 딕 어워드(Philip K. Dick Award)를 수상한 SF소설

★ 멸종 위기에 처한 인간, 남자보다 여자의 숫자가 훨씬 희박한 미래 사회를 사실적으로 그린 소설

★ <어디로도 달지 않는 길(Road to Nowhere)> 시리즈의 첫 번째 이야기

우리가 당연하게 살아가는 이 세상이 멸망한다면 어떻게 될까? 인류와 세상의 종말은 셀 수 없이 많은 SF 소설에서 다루어졌지만, 이 책은 종말 이후 세상의 모습과 더불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평범한 세상이 서서히 어두운 멸망의 길로 접어드는 그 과정, 경계에 놓인 사람들의 모습을 무겁게 다룬다. 신종 전염병이 삼시간에 번져 전 지구를 휩쓸고, 유독 임신한 여성이 가장 큰 타격을 받는다는 설정은 최근 실제로 세계를 두려움에 떨게 만든 지카 바이러스를 떠올리게 한다. 그저 대규모 식중독 정도로 가볍게 생각했던 소설 속 감염 질환으로 출산은 곧 산모와 아이 모두에게 내려진 사형선고와 같은 말이 되어버린 세상. 전체 인구의 98 퍼센트가 이 병으로 사라지고, 남은 인구의 성비는 균형을 잃고 만다. 남자가 여자보다 열 배나 더 많은 세상에서, 살아남은 이들 사이에서는 병에 걸려 언제든 죽을 수 있다는 극한의 공포가 팽배했다. 살아남았다는 이유로 거센 권력을 한꺼번에 쥐게 된 남자들은 극소수만 남은 여성들을 마음대로 통제하려 한다. 여성이 재산이자 상품이 된 위험한 도시에서 남자 행세를 하며 숨어 살던 주인공은 위험한 거리를 돌아다니다 자신이 해야 할 진짜 역할을 깨닫기 시작한다. 이도 저도 아닌 존재로 목숨을 부지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일, 자신만이 할 수 있고 또 해야만 하는 일에 뛰어든 주인공의 이야기는 그녀가 남긴 일기를 희귀한 역사적 자료로 삼아 몇몇 학생들이 연구한다는 독특한 형식으로 전해진다. 완전히 사라질 수도 있었던 인간의 위태로운 생명을 목숨 걸고 지켜낸 산파의 이야기는 제아무리 발전된 문명도 아주 작은 불씨 하나로 잿더미가 될 수 있음을 생생하게 그리며 새로운 종말의 시나리오로 독자들을 안내한다.

주인공인 산파는 원래 어느 대형병원의 산부인과 간호사였다. 한 해가 저물고 새해를 맞이하고 며칠 지났을 때부터 고열에 시달리는 환자들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유독 여자 환자가 많았다. 뱃속에 아이를 가진 여성들이 조산하거나 사산아를 낳는 일도 늘어났다. 보름 정도가 지난 후부터는 그 숫자를 일일이 셀 수가 없을 정도였다. 미국 다른 주에서 일하는 친구들은 메일이며 문자로 상황이 똑같거나 더 심각하다고 알려왔다. 전염 속도가 너무 빨라 나라에서도 대책은커녕 원

인조차 밝혀내지 못했다. 병원 전체가 격리되지만 소용없었다. 가장 강력한 항생제도, 염증을 막는 약이며 진정제, 진통제, 아무 약도 듣지 않았다. 사람의 몸이 스스로를 공격하는 자가면역 질환이라는 소문이 돌기 시작하고, 병에 걸린 사람들은 대부분 목숨을 잃었다. 희한하게도 남자들은 간혹 살아남는 사람들이 나타났지만 여자와 어린아이들은 치사율이 거의 100 퍼센트였다. 결국 한달 쯤 뒤, 그녀 자신도 열이 오르기 시작했다. 그런데 기적적으로 산파는 죽지 않았다. 하지만 이미 병으로 초토화된 세상에서 산파는 죽었다면 보지 않았을 끔찍한 일들을 목격한다. 극도의 공포로 이성을 잃은 남자들은 여성을 물건처럼 다루었다. 폭력, 추행, 성폭행은 일도 아니었다. 그들 손에 잡히면 끔찍없이 갇혀 무슨 끔찍한 일을 당할지 상상할 수도 없었다. 결국 산파는 남장을 하기로 결심하고, 치밀한 계획을 세운다. 모두가 죽어나간 통에 쓰레기장처럼 폐허가 된 빈 집들을 뒤져 봉대를 찾아내 가슴을 단단히 가렸다. 머리는 박박 밀고, 남자 바지와 전투화를 신고 다녔다. 수영 없는 흔적을 가리기 위해 아침마다 턱 주변에 검은 때를 일부러 묻혀야 했다. 체구가 작은 계집애 같은 젊은 남자. 꼭 그런 행색으로 이름을 계속 바꿔가며 산파는 최대한 사람들을 피해서, 말없이 거리를 헤매며 안전한 곳을 찾아 다닌다.

그러나 날마다 눈앞에서 펼쳐지는 사태를 지켜보며, 그녀의 머릿속에 의문이 떠오르기 시작한다. 혼자 안전하게 살아남는 것이 중요한가? 도울 수 있는 일을 모른 척한 채, 목적 없이 목숨을 부지하는 생활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길에서 만난 사람들, 다른 생존자들과의 대화와 고민 끝에 그녀는 이 끔찍한 세상을 다시 정상으로 되돌리기 위해, 자신에게 주어진 몫을 해내기로 결심한다. 자신에게도, 자신이 세상으로 데려온 새 생명도 바로 다음 날을 장담할 수 없는 위태로운 싸움이 시작된다.

2014년 6월에 첫 출간된 이 소설은 <어디로도 달지 않는 길(Road to Nowhere)> 시리즈의 첫 번째 이야기로, 2권 『THE BOOK OF ETTA』는 2017년 2월에 나올 예정이다.

<저자 소개>

멕 엘리슨(Meg Elison)은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UC 버클리에 들어가 공부를 마쳤다.

NON-FICTION

제목 : AMONG THE WHOLESOME CHILDREN

가제 : 온전한 아이들 사이에서

저자 : Sarah Weinman

출판사: Weidenfeld & Nicolson(UK)/Ecco Press(USA)

발행일: 2017년 가을

분량 : 80,000 words

장르 : 사회/범죄



★ 파격적이고 참신한 주제로 고전의 반열에 오른 『롤리타』와 너무도 흡사한 실제 아동 납치사건의 전말과 소설과의 연관성

★ 2014년 문학 잡지 「Hazlitt」에 처음 게재된 후 50만 명 이상이 읽고 캐나다 국립 매거진 어워드로부터 “최우수 취재조사 기사” 결선에 오르며 화제가 된 글을 보강하여 완성된 책

블라디미르 나보코프가 1955년에 발표한 소설 『롤리타』는 처음 세상에 나왔을 때나 60여 년이 지난 지금이나 여전히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 화제성을 뒷받침하듯 전 세계적으로 수백 만권이나 판매된 소설이지만, 2014년에 이르러서야 누구도 짐작하지 못한, 혹은 상상하지도 못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바로 『롤리타』가 나오기 전인 1948년, 미국에서 소설의 내용과 너무도 흡사한 사건이 실제로 일어났다는 사실이다. 열한 살 생일이 갓 지난 샬리 호너라는 이름의 소녀가 정비공으로 일하던 50대 남성 프랭크 라 살레에게 납치된 사건이었다. 새라는 아버지 행세를 했던 프랭크의 차에 실려 뉴저지에서 캘리포니아까지 끌려 다니며 성적 학대와 정신적인 조종을 당했다. 이 충격적인 사건의 전말은 저자가 2014년 한 문학잡지에 기고한 글을 통해 세상에 널리 알려졌고, 5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 글을 읽었다. 페이스북에서 7,500회 이상, 트위터로 1,200건 넘게 공유되며 큰 화제를 낳기도 했다. 저자는 글이 실린 잡지나 자신에게 돌아온 그 커다란 관심보다 그 글을 쓰면서 직접 발견한 사실에 누구보다 깊이 매료되었다. 사람들의 관심에 힘입어, 저자는 샬리 호너 사건과 소설 롤리타의 연관성에 대해 더욱 심층적인 조사에 돌입했다. 그 결과 더 많은 진실을 밝혀내고, 이 책을 완성하기에 이르렀다.

롤리타의 실제 모델이라고 확신하지 않을 수 없을 만큼 너무나 많은 부분이 소설과 일치하는 샬리 호너 사건. 그 어린 소녀가 겪은 비극적인 실제 사건을 최초로 모두 밝힌 이 책에서 저자는 나보코프 소설과의 연결고리를 집중 조명하는 한편, 아동 납치와 비뚤어진 성적 욕망이 당시는 물론 그 이후 지금까지 사회 전반에 어떤 영향을 발생시켰는지 짚어본다. 더불어 샬리의 사건이 발생하고 롤리타가 발표된 20세기 중반 미국 사회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드러낸다.

서스펜스 소설을 비롯해 그 동안 문학 편집자로 탄탄한 기반을 쌓아온 저자가 처음으로 완성한 이 저서는 소아성애자에 의한 범죄가 당시보다 훨씬 급증하고(또는 세상에 드러나고) 그 심각성에 대한 사람들의 우려와 관심이 높아진 현 시점에 나보코프의 소설을 새로운 관점에서 들여다보고 사회적 의미를 다시 진단할 수 있는 뜻 깊은 기회가 될 것이다. 세상에 드러나지 않았던 셸리 납치 사건의 비극적인 내용은 상상력이 발휘된 소설 속 이야기와 함께 문화적, 역사적으로 보다 넓은 관점에서 사건을 분석할 수 있는 눈을 키워준다.

<목차>

머리말. “내가 그 아이에게 그러기라도 했나요?”

1장. 5센트짜리 노트로 시작된 비극

2장. 뉴저지 캠프: 시작

3장. 애틀랜틱 시티

4장. 볼티모어

5장. 델러스

6장. 샌 호세, 그리고 탈출 ,

7장. 재조정과 모두를 놀라게 한 항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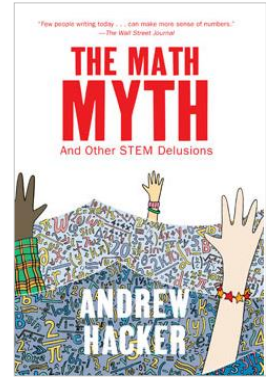
8장. 사건 이후, 그리고 사고

맺음말

<저자 소개>

새라 바인만(Sarah Weinman)은 「퍼블리셔스 마켓플레이스」의 뉴스 편집자로 일하면서 「내셔널 포스트」에 매달 미스터리, 서스펜스 칼럼을 기고하고 있다. 그 밖에도 「월스트리트 저널」, 「LA 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등에 글을 실고 있다.

제목 : THE MATH MYTH
가제 : 수학교육 다시 보기
저자 : Andrew Hacker
출판사: The New Press
발행일: 2016년 3월 1일
분량 : 240 페이지
장르 : 수학



- * “학생들이 다항 함수 때문에 씨름할 필요가 없다는 저자의 주장에 수학 교육자들은 머리가 아찔해질지도 모른다. 그들은 물론, 누구나 읽을 만한 가치가 있는 책이다.” – 슬레이트(Slate)
- * “미국이 세계경제에서 경쟁력을 잃지 않으려면 학생들이 한 단계 더 높은 수학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에 적극적으로 반박하는 책” – 커커스 리뷰(Kirkus Review)
- * 좋은 직업을 얻고 성공하려면 골치 아픈 수학도 다 배워야 한다는 통념을 뒤집는 수학 교수의 파격적이고 설득력 있는 주장

21세기에 접어들면서부터 미국은 세계무대에서 자존심과 오랫동안 강대국으로서 누려온 특권을 잃지 않으려고 기를 쓰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다. 다른 나라들 위에 우뚝 서서 세계 정세를 통치하기에는 미국의 능력이 부족하다는 증거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져 나오고 있으니 그러한 불안감도 당연한지 모른다. 미국 정부와 학계가 그 따가운 지적의 원인과 해결책을 다각도로 분석한 결과 ‘과학, 기술, 공학, 수학’의 중요성이 급부상했다. 문학이나 예술, 철학과 인류학에 관심을 갖는 젊은이들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는 추세는 외면된 반면, 이 네 가지 분야는 국가의 성공과 미래에 반드시 필요한 요소로 강조되었다. 정말 그럴까? 미래를 짊어질 청년들은 개개인의 적성이나 흥미와 상관없이, 무조건 대수학이나 기하학, 삼각법, 미적분학을 알아야 한다는 주장이 사실일까? 그러한 수학적 지식이 정말로 사회적으로 성공하기 위한 ‘필수요건’일까? 수학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일을 일생의 소명으로 여기고 수학 교수로 살아온 저자는 2012년, 「뉴욕타임스」에 실린 글에서 이런 의문을 제기하고, 현실성이 전혀 없으므로 반대한다는 의견을 드러내며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수학이 생각의 폭을 넓혀준다는 주장, 알쏭달쏭하기만 한 방위각이며 점근선 같은 수학적 개념을 알아야 좋은 회사에 취직할 수 있다는 생각에 반박하고 ‘필수 공통과목’으로 묶인 과학, 기술, 공학, 수학 중심의 교육이 오히려 학생들의 재능을 썩히게 만들고 이는 국가 차원에서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저자의 파격적인 주장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얻었다. 저자는 그 주장을 보다 상세히 정리한 이 책에서, 수학은 분명 역사적으로 귀중한 성과를 도출했고 지식 목표를 달성하게 하는 지름길이 될 수 있지만, 예외 없이 모든 학생들에게 무조건 수학을 공부하게 하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그런 획일적인 수학 교육은 타고난 다른 재능의 싹을 자르는 가위로 작

용하고, 졸업과 취직을 막는 방해물이 될 뿐인 이유를 저자는 이 책에서 차근차근 설명한다. 더
불어 기계적이고 불필요하게 어렵기만 한 수학 이론보다는 실생활과 원만한 업무처리에 꼭 필요
한 내용을 가르쳐야 한다고 설명한다. 은행 적금이나 대출 이자를 계산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대수학의 개념과 통계학, 마일리지를 계산하거나 지출 보고서를 쓰려면 꼭 알아야 하는 수준의
수학적인 지식을 익히는 것이 대부분의 학생들에게 적절하며, 그보다 어려운 수학은 정말로 필요
한 사람들만 선택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는 것이 저자의 의견이다. 졸업
과 학위를 위해 지나치게 단순화시킨 수학 개념을 강제로 밀어붙이는 대신 현실을 반영한 수학교
육의 필요성에 관한 저자의 주장은 현재 수학과 씨름하는 학생들은 물론 학부모, 교육자 모두가
충분히 납득할 만한 내용이다. 수학에만 국한되지 않고, 개개인이 소망하는 미래와 사회의 모습
을 만들어가는 데 꼭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되짚어보게 하는 책이다.

<목차>

1. STEM(과학, 기술, 공학, 수학) 중 'M(수학)'의 의미
2. 흑독하고 무분별하게 버티고 선 장애물
3. 배관공이 다항정리를 알아야 할까?
4. 어제 만난 피부과의사가 미적분학을 사용하며 일할까?
5. 성별 격차
6. 수학이 정말 생각을 키워줄까?
7. 고위공무원
8. 공통과목: 천편일률적인 기준
9. 학과목 vs. 발견
10. 가르치는 일, 목표의 달성, 그리고 시험
11. 통계학을 피하는 법
12. 가장 기본적인 산술 능력

<저자 소개>

앤드류 해커(Andrew Hacker)는 퀸스 칼리지에서 정치과학과 수학을 가르치고 있다. 베스트셀러
를 포함해 총 10권의 저서를 썼다.

제목 : THE WORRY SOLUTION

가제 : 걱정 안하고 사는 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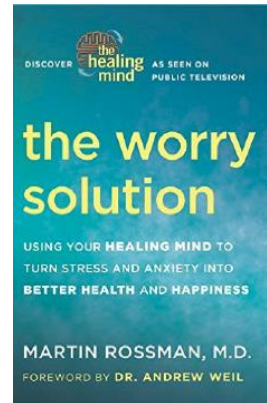
저자 : Martin Rossman

출판사: Harmony

발행일: 2010년 12월 28일

분량 : 256쪽

장르 : 건강/심리



- * 「아메리칸 헬스(American Health)」 매거진 선정, 자기치유를 돕는 최우수도서의 저자가 쓴 재미 있는 심리치료서. 영국, 중국, 네덜란드 판권 계약 체결
- * 미국 공영방송 PBS 방송프로그램 “The Healing Mind”, 인기 웹사이트 ‘Books for Better Living’를 통해 집중 조명된 저자의 특별한 연구내용이 총 정리된 책
- * 부정적인 생각과 불안감을 떨치고 생산성 있게 충만한 인생을 살 수 있는 법을 소개한 안내서

걱정을 하지 않고 사람은 없다. 그러나 가끔 걱정을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많은 사람들이 늘 걱정을 놓지 못하고 살아간다. 걱정은 인간의 생존을 돕는 중요한 기능을 하고, 위험을 피하거나 앞으로 닥쳐올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최선의 방도를 찾도록 도와준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 다가올 미래를 상상하고 예측하는 능력이 인간에게 주어진 것은 축복이자 저주라 할 수 있다. 그러한 능력은 목숨이 유한하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인지하게 하는 동시에, 인간이 아주 취약한 존재임을 깨닫게 만든다. 그리고 이 특별한 상상력은 마음속으로 수많은 문제를 이리저리 생각하게 하여 걱정이라는 불씨를 낳는다. 위기에 관한 적당한 통찰은 상황을 빠져나갈 방법을 찾게 하지만, 빠져나올 수 없는 불안의 늪으로 끌고 가기도 한다. 인간이 가진 상상력을 잘 통제된 방법으로 활용하여 병든 마음을 치료하는 수단으로 활용하는 법을 연구하고 그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권위자로 인정 받고 있는 저자는 이 첫 번째 저서에서, 뇌 과학에서 발견된 놀라운 사실들을 토대로 스트레스와 불안감을 자신감과 행복으로 변신시키는 길을 독자들에게 알려준다. 뇌의 구조상 우리가 걱정을 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과 걱정이라는 감정이 생겨나는 과정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논리적인 사고와 상상력을 토대로 한 사고 능력을 활용하여 습관적으로 걱정하며 삶의 즐거움을 소진시키는 생활에서 벗어나 문제 해결 능력을 스스로 키우는 법을 소개한다.

걱정도 나쁜 걱정이 있고 유익한 걱정이 있다는 것이 저자의 설명이다. 문제는 해로운 걱정을 습관처럼 하면서부터 시작된다. 그러한 습관은 만성 스트레스를 만들고, 과식과 알코올 중독, 흡연, 약물 남용 등 충동적인 행동의 뿌리가 된다. 저자는 ‘걱정 해결법’으로 명명한 프로그램을 통해, 머릿속을 잠식한 걱정을 명료하게 만들어서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과 그럴 수 없는 부분을 구분하고, 뇌에서 커다란 부분을 차지하지만 평소 드러나지 않았던 지혜를 끄집어내어 창의

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법을 소개한다.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다른 사람들까지도 쓸데 없이 고통스럽게 만드는 걱정의 늪으로부터 벗어나 걱정은 본연의 목적, 즉 위험을 피하고 안전하게 살아가는 수단으로만 활용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다. 불안감만 키우는 생각에 몰입하는 대신 용기와 침착함, 자신감, 창의력을 키우는 생각에 더욱 집중하는 방법도 함께 습득할 수 있다.

<목차>

서문, 머리말

1. 뇌 구조 상, 우리는 걱정을 하게 되어 있다
2. 걱정을 하더라도 ‘잘’ 하자
3. 평온함을 키워라
4. 걱정을 선명하게 만들어보자
5. 내면의 지혜
6. 나쁜 걱정은 바꿔버리자
7. 좋은 걱정은 더 유익하게 만들자
8. 뇌를 의식하라
9. 감정적, 직관적 뇌의 지혜
10. 가장 잘하는 것을 키워라
11. 걱정을 넘어서

<저자 소개>

마틴 로스먼(Martin Rossman)은 캘리포니아 대학교에서 임상 교수로 근무하면서 웹사이트 ‘힐링 마인드(www.thehealingmind.org)’를 운영하고 있다. 사이트명과 동일한 방송프로그램에도 출연했다. 저서로는 『Fighting Cancer from Within』, 『Guided Imagery for Self-Healing』 등이 있다.

제목: ARE YOU BOXED IN?

가제: 틀에 박힌 당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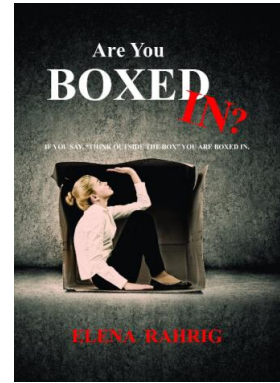
저자: Elena Rahrig

출판사: Otter Publishing New York

발행일: 2015년 8월 2일

분량: 128 페이지

장르: 자기계발



- * “바로 눈 앞에서 기다리는 흥미진진한 목표를 직접 찾아내고, 자신의 반응 방식을 고찰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책” – 베스트셀러 『Creating Your Own Destiny』의 저자 패트릭 스노우
- * 자신의 틀을 벗어나는 사고법에 관한 흥미로운 자기개발서

늘 하던 방식으로만 생각하고 행동하는 일상이 염려스러워질 때가 있다. 많은 사람들이 작은 틀 속에 생각이 갇혀 있다는 느낌을 받고, 벗어나려고 애쓰지만 빠져나갈 방법을 알지 못한다. 혹은 오랫동안 익숙해진 틀에서 벗어나는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용기를 내지 못한다. 다른 사람들의 자기개발을 돕고 인생 코치로 활약해온 저자는 이 책에서 그 원인과 해결 방법을 제시한다. 수년 동안 같은 고민에 빠진 사람들을 지켜보면서 주변 환경과 세상 속에서 스스로 움츠러들게 되는 과정을 알게 되었다는 저자는 그 내용을 상세히 전하고, 유난히 작은 상자에 갇히기 쉬운 타입인지 파악할 수 있는 요소를 짚어준다. 그보다 반가운 소식은, 이미 틀에 박혀 있더라도 빠져나올 수 있는 새로운 행동방식을 새로 배울 수 있다는 사실과 함께 그 방법을 알려준다는 것이다. 틀에서 벗어난 생각을 하는 방법, 궁극적으로는 생각뿐만 아니라 몸 전체를 틀 바깥으로 고집어내어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배울 수 있다.

사람들은 크든 작든 저마다 목표를 가지고 살아간다. 이루고 싶은 일들이 하나쯤은 누구나 마음에 품고 있게 마련이다. 그리고 가끔 그 꿈을 떠올리며 이루고 싶다고 소망한다. 저자는 여기에 중요한 의문을 던진다. 그 목표가 정말로 이루어지면, 자기 자신이나 인생이 바뀔까? 더 나아질까? 품고 있던 목표가 현실이 된다면 큰 변화가 저절로 찾아온다는 생각에는 분명 모순이 있다. 먼저 변하지 않는 한, 목표도 이를 수가 없기 때문이다. 저자는 그 자명한 원리를 깨닫는 것이 먼저라고 이야기한다. 변화 없이 원하는 것을 이루려 한다면 영원히 잡히지 않는 꿈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는 것, 지금 자신의 모습에 만족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조금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작은 걸음부터 내디딜 때 비로소 틀에서 벗어날 수 있고 꿈도 이를 수 있다는 사실을 저자는 다정하고 쉬운 문장으로 설명한다.

책의 1부에서는 ‘조건화’에 관한 내용이 다루어진다. 동일한 상황에서도 사람마다 극명히 다른 반응을 보이는 이유는 타고난 성격 때문이 아니라, 태어난 직후부터 조건화된 결과이다. 그렇게 자신도 모르게 갇혀버린 틀을 저자는 네 가지로 구분하고, 각각의 원인을 설명한다. 더불어 어떠

한 조건화든 조건화 이전의 상태로 되돌릴 수 있다는 가장 중요한 원칙을 바탕으로, 상황을 인식하고 가장 좋은 대응 방식을 택하는 과정을 새로 정립할 수 있는 길을 알려준다. 책 2부에서는 1부에서 인식한 각각의 문제에 맞게 결코 변할 수 없을 것 같은 현 상태를 극복하는 과정을 단계별로 알려준다. 자신이 갇힌 틀이 어떤 종류인지 먼저 파악하고 그에 맞게 새로운 자신을 찾는 과정을 시작하도록 도와준다.

불가능하다고 단정짓기 쉬운 현재의 자리를 과감하게 털고 일어나, 내면에 꽂혀 발휘하지 못한 재능을 마음껏 발휘하고 훨씬 더 즐겁고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변신을 이끌어주는 자기계발서다.

<목차>

1부. 틀 방어 4단계

서론. ‘왜?’

1장. 전사 타입

2장. 벽 쌓기

3장. 캐묻기 좋아하는 타입

4장. 오리발 타입

5장. 수사반장 타입

6장. 틀에서 나오기

2부. 5단계 변신 체계

7장.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생각하기

8장. 두려움과 이별하기

9장. 자신의 역량 발견하기

10장. 특별한 삶으로 만들기

11장. 목표 정하기

부록

<저자 소개>

엘레나 레흐리그(Elena Rahrig)는 미국 전역에서 인정 받는 자기계발 코치로 활동하면서 Otter Publishing New York, BoxCrushers, Elena Rahrig Transform 등 여러 개의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자기계발서, 아동 도서 등 총 아홉 권의 저서와 영화 각본을 썼다. 나이와 상관없이 자기계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직접 고안하기도 했다.

제목 : MAN WHO QUIT MONEY

가제 : 돈과 이별한 남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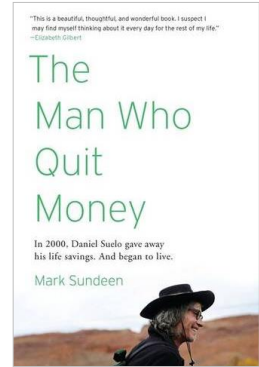
저자 : Mark Sundeen

출판사: Riverhead Books

발행일: 2012년 3월 6일

분량 : 272 페이지

장르 : 전기



★ 2015년 그린 북 페스티벌(Green Book Festival) 대상 수상작

★ 체코,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터키 판권 계약 체결

★ “금전적, 물질적 보상에 집착하는 우리 사회를 고찰한 전기 ... 돈에 총체적으로 중독된 우리에게 진지한 자기탐구의 필요성을 일깨운다.” - 북리스트(Booklist)

2000년 어느 날, 당시 서른아홉 살이던 한 남자가 고속도로 근처에서 공중전화 부스로 들어갔다. 주머니에 있던 전 재산, 30 달러를 고집어낸 남자는 부스 안에 그 돈을 놓고서 홀연히 길을 떠났다. 대니얼 수엘로라는 이름의 남자는 그 순간부터 현재까지 돈 한 푼 없이 살아왔다. 돈을 벌지도 않고, 누가 준다 해도 받지 않고, 정부가 제공하는 무상지원도 일체 거부한 채 자선 목적으로 주어지는 손길만 받아들이며 유타 주 사막에서 살고 있다.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 대학까지 다닌 그는 정신이 이상해진 것도 아니고 약이나 술에 중독된 것도 아니었다. 정신이 말쑥한 사람이 오직 자유 의지로 내린 선택이었다. 수엘로는 돈과 영원히 작별을 고하고 나서야 비로소 그동안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자유와 안정감을 찾았다고 이야기한다. 저자는 수엘로가 왜 인생에서 돈을 완전히 몰아내기로 결심했는지 그 사연과 그간 생활해온 과정을 이 책에서 들려준다. 돈이 사라지면서 자연스레 찾아온 뜻밖의 행복에는 돈을 중시하는 우리 사회에 던지는 메시지가 담겨 있다.

수엘로는 돈 한 푼 없이 살기로 결심한 후 십 년이 넘는 세월이 지나는 동안 단 1달러의 돈도 벌거나, 받거나, 쓰지 않았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금융기관에 두툼한 증명서류를 내고 주택담보대출이며 각종 대출 서류에 서명을 할 때 수엘로는 그 누구에게도, 어느 기관에도 빚을 얻지 않았고 차용증서 한 장 쓰지 않았다. 돈이 아닌 형태로도 경제적인 거래는 일체 없었다. 심지어 다른 사람과 물건을 교환하는 일조차 하지 않았다. 세금을 내지도 않고, 미국 정부가 저소득층에게 무상으로 지급하는 식료품 쿠폰이나 복지 혜택 등도 모두 거절했다. 그가 집으로 택한 곳은 유타 주 캐년랜드의 한 동굴. 수엘로는 그곳에 살면서 나무에 열린 열매 등 식물을 구해서 먹고 도로에서 차에 치어 죽은 야생동물을 식량으로 삼았다. 쓰레기통을 뒤져 유통기한이 지나 버려진 식료품을 찾기도 하고, 친구나 낯선 사람이 아무 대가 없이 건넨 음식을 받기도 했다. 같은 나라에 사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무거운 세금과 대출 이자에 허덕이면서도 은퇴 후의 삶을 염려하는 동안, 수엘로는 신분증 하나 없이 유유자적 그렇게 살아왔다. 무엇이 그를 이런 삶으로 이끌었을까?

근본주의 기독교를 믿는 가정에서 태어난 수엘로는 콜로라도 대학교에 진학한 후 다른 종교들을 접하고 흥미를 느끼기 시작했다. 특히 힌두교와 불교에 매료된 그는 태국과 인도로 여행을 떠나기도 했다. 이후 평화유지군에 합류하여 에콰도르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하던 중, 수엘로는 부모님께 자신이 동성애자임을 밝혔지만 단호한 거부의사만 되돌아왔고, 이 일로 깊은 우울증에 빠졌다. 세상에 환멸을 느낀 그는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고정된 직장은 구할 생각도 하지 않은 채 자원봉사와 도전적인 일, 모험에 가까운 일만 하며 돌아다녔다. 연어잡이 선박에서 일하고 알래스카 산악지대를 오르는 등 평범하지 않은 삶을 이어가던 수엘로는 마침내 2000년, 남의 차를 얻어 타며 미국을 횡단하다가 돈과의 인연을 완전히 끝내기로 결심한 것이다. 저자는 그의 일상을 곁에서 가만히 쫓아다니면서 어떤 철학이 그와 같은 삶을 가능하게 만드는지 살펴본다. 돈은 거부했지만 인간의 기본적인 의식주 욕구는 물론 타인과의 교류, 목적 있는 삶, 영적 발전을 추구하는 일은 그대로 이어나가는 수엘로의 삶은 지금 우리가 당연하게 내리는 모든 결정들과 나름의 이유를 들어 의도적으로 선택하는 일들에 담긴 의미에 진지한 의문을 제기하고, 무엇이 더 나은 삶의 방식인지 다시 생각하게 한다.

<목차>

- 별도 소제목 없이 14장으로 구성

<저자 소개>

마크 선딘(Mark Sundeen)은 『Car Camping』과 『The Making of Toro』를 비롯해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 베스트셀러에 오른 『North by Northwestern』를 쓴 작가이다. 뉴멕시코 대학교와 웨스턴 코네티컷 주립대학교의 소설, 비소설 창작 프로그램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제목 : A WORLD HISTORY OF RUBBER

가제 : 고무로 본 세계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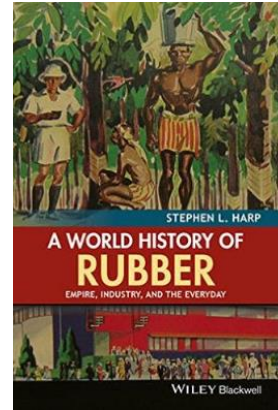
저자 : Stephen Harp

출판사: Wiley-Blackwell

발행일: 2015년 12월 21일

분량 : 184 페이지

장르 : 역사



- * “세계적인 상품의 역사를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책. 고무에 관한 심층 탐구를 통해 산업화 중심의 세계화의 맥락에서 인종, 제국, 소비주의를 이야기한다.” – 새크라멘토 주립대학교 마이클 G. 반 (Michael G. Vann)
- * “훌륭한 역사서. 저자의 세밀한 분석은 학자들에게 즐거움을 안겨주고, 학생들은 흥미진진한 이야기에 몰입할 수 있다.” – 켄트 주립대학교, 레베카 펄주(Rebecca Pulju)
- * 고무를 매개체로 삼아 19세기부터 현재까지 전 세계의 상품 생산과 소비의 사회적, 문화적 흐름에 새로운 통찰력을 부여하는 역사서

산업혁명의 1세대를 이끈 것이 설탕과 목화였다면, 고무는 두 번째로 대대적인 산업혁명을 이끈 수단이 되었다. 따라서 19세기 이후 현재까지 전 세계에서 이루어진 상품의 생산과 소비 흐름, 그 속에 담긴 사회적, 문화적인 배경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고무를 생산과 판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유럽의 변천사와 세계사를 집중적으로 연구해 온 저자는 바로 이런 이유에서 고무를 일종의 렌즈로 삼아 19세기와 20세기 세계정세의 키워드라 할 수 있는 제국주의, 산업화, 인종주의, 불평등 문제를 조명한다.

사탕수수 농장에서 혹독한 처우를 견디며 일하던 농민들이 유럽의 조직적인 설탕 공장 노동자로 이어졌듯이 식민지에서 고무나무를 재배하던 농민들은 유럽과 미국의 타이어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로 이어졌다. 또 목화가 산업혁명을 통해 수많은 소비재의 원료가 된 것처럼 고무 역시 농산품에서 저렴한 값으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소비재 원료로 변모했다. 특히 제 2차 대전 기간에 미국은 고무 공급이 원활해지지 않자 얼마나 큰 문제가 빚어지는지 체감하면서 고무의 중요성을 인지했고, 이는 합성 고무의 개발과 폭발적인 생산량이라는 결과를 낳았다. 지금 세계 경제가 원유 공급과 가격에 주목하듯이 20세기 초반에는 고무 가격과 수급부족 문제가 경제계의 화두였다. 그 대상이 원유로 바뀐 것도, 석유가 합성 고무의 기본 원료임을 생각하면 당연한 수순이라 할 수 있다. 저자는 이처럼 세계경제의 핵심요소가 된 고무의 역사를 찾아가는 여행에 독자들을 초대한다. 단순히 고무나무가 재배되고 공장에서 고무가 어떻게 생산되고 운반되어 각 가정에서 사용되는지 추적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고무를 통해 제국주의와 산업화, 소비주의가 서로 어떤

관계를 형성했는지 선명하게 들여다볼 수 있다.

책은 목차에 나와 있듯이 주제를 다섯 가지로 나누고 현재와 같은 세계화가 이루어지기 전, 세계 정세가 어떠했는지 살펴본다. 더불어 그 여파로 지금까지 이어지는 전 세계적인 사회적 불평등을 지적한다. 한 가지 상품으로 수많은 사람들과 장소, 아이디어의 역사를 능수능란하게 엮어낸 글과 철저한 조사 자료, 일러스트레이션, 지도는 역사와 경제에 관심 있는 학생들은 물론 누구에게나 흥미를 자아낸다. 지금 우리의 일상이 어떤 과정을 통해 확립되었는지 새로운 방식으로 고찰해보는 기회가 될 것이다.

<목차>

감사의 말

연대순 정리

전 세계 고무, 타이어 업체

머리말: 왜 고무인가?

세계 각국의 연결관계

1. 인종, 이주, 노동
2. 농장과 공장에서 여성과 성별
3. 수요, 일상적인 소비
4. 세계대전, 국가주의, 제국주의
5. 저항과 독립

결론: 잊혀지고 기억되는 고무

<저자 소개>

스티븐 L. 하프(Stephen L. Harp)는 애크론 대학교에서 역사 교수 겸 프랑스어 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로 유럽 변천사와 세계사의 사회적, 문화적 역사 연구에 주력해 왔다. 저서로는 『Au Naturel: Naturism, Nudism, and European Tourism in Twentieth-Century France』 (2014), 『Marketing Michelin: Advertising and Cultural Identity in Twentieth-Century France』 (2001), 『Learning to Be Loyal: Primary Schooling as Nation Building in Alsace and Lorraine, 1850-1940』 등이 있다.